

다시 사는 삶,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 ●●●

올리브 통삼겹살 업소를 운영하면서 겪은 좌절과 희망

김석원
(서울 금천구)

서울역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지하도에서 구걸을 하던 노숙자 한명에게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떨어뜨렸다. 순간 노숙자는 기절할듯 기뻐고 주위를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

“앗, 저사람 분명 우울증 환자일거야”

“제 정신이야? 미쳤잖아”

“아니 저사람, 1000원짜리 준다는 걸 실수한거야. 가서 알려줘야 돼!”

“아냐. 저 사람은 3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집을 뛰쳐 나간 자기집 동생이 떠올라서, 지금도 어딘가 길거리에서 떨고 있을 그 동생이 생각나서 일부러 10만원짜리 수표를 줬을거야”

서울역을 빠져 나와 염천교쪽으로 갔다. 그곳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어제처럼 비에 젖은 낡은 신문지와 너털너털한 종이박스로 계절을 나고 있는 노숙자들이 있었다.

노숙자들의 실상을 다룬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가족과 직장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게 됐고 얼어죽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희망 없는 삶. 그런 경험에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 역시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임을 잘 알고 있다.

나도 한때는 제법 잘 되던 통삼겹살집 사장이었다. 사장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부끄러웠지만 유난히 운이 좋아 근처에 돼지고기집이 많지 않아서 손님들이 항상 들어왔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주유소를 하던 형님이 큰 빚을 지면서 보증을 섰던 나한테 빚쟁이들이 몰려 들기 시작했다. 옆친데 댄친 격이랄까. 시장을 봐가지고 오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해 뇌수술까지 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태가 터졌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은 견잡을수 없이 악화돼갔다. 빚쟁이들이 고기집에 몰려와 행패를 부리자 슬슬 손님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주변에 돼지갈비, 대나무 삼겹살, 곰창구이집까지 3개나 생겼다.

그때부터 우리 고기집은 파리를 날리기 시작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게 결국 고기도 잘 만나가고 판로도 끊겨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다.

결국 슬슬 형님 빛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가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고기라도 잘 팔리면야 웬만한 적자야 채권자들을 설득해본다지만 이미 한번 돌아선 손님들은 잘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고기집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계속되는 빚쟁이들의 협박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추운 겨울이었으면 좀 덜했겠지만 그냥 밖에서 버틸만 했던 여름이었던지라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고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거리를 걷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지하도로 갔다. 그리고 웅크리고 누워 기도했다. 제발 다시 눈을 뜨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대로 잠들어 영영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희망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버린 무가지 신문을 집어들었다. 무심코 깔고 앉다가 <희랍인 조르바>를 쓴 그리스 작가의 묘비명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기사를 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유명한 사람,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죽은 후 그의 묘비명에 쓰여진 글귀가, 그것이란다. 세상에 원하는게 없으니 무욕이요, 무욕이니 두려울게 없고, 두려울게 없으니 자유로울 수밖에...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뒷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흔한 말이지만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바로 그것 아닐까?

눈물이 주무룩 흘렀다. 그동안 나의 아내, 내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가자. 돌아 가자. 다시 시작하자.

‘가출’ 4개월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8월에 시작한 노숙을 정리하고 12월에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을 다시 보니 꿈만 같았다.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지만 내 성실성을 믿어줘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진작에 돌아올것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또다시 나는 이곳 번두리로 나와 조그만 고기집을 다시 뵈다. 나를 믿고 재기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열곱절 더 열심히 일하며 남들보다 더 뛰고 있다.

좌절의 쓰라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방황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실타래를 풀수 있는것은 오직 나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있다.”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있다. 오늘도 그래서 이땅은 밝은 아침이다. **양돈**

